2022 문화계 결산 (2) 미술·문학

서울에 '제주갤러리'… 미술축제 확장

5년만에 제주비엔날레 새로운 미술시장 주목 세한도 178년만에 귀향 문학인 창작 열기 꾸준

▲ 2017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5년만에 열린 '제주비엔날레' 제주시 산지천 일대를 미술관으로 변신시킨 '아트페스타 인 제주' ▶

2022년 제주는 새로운 미술시장으로 주목받았다. 올해에만 두 개의 '아트페어'가 생겨나 첫선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비엔날레가 5년만에 다시 열렸고, 제주 작가들의 중앙무대 진출 교두보가 될 '제주갤러리'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내 자리했다. 더불어 미술축제들이 공간 확장 등 새로운 시도를 꾀하며 약진했다.

올해 초 "제주미술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며 갤러리들이 연대한 제주화랑협회가 출범했다. 협회가 자체 예산과 후원으로 행사 예산을 꾸려 지난 여름 '호텔 아트페어'로 처음 선보인 '2022 제주국제화랑미술제' 거래규모는 주최측 추산 약 12억원으로 집계되며 선전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아트제주 2022'는 8월로 시기를 앞당기고 중문관광단지로 장소를 옮겨 관광객과 도민을 맞았다. '호텔 아트페어' 형식에서 올해 처음 부스형 페어로 진행됐다. '아트제주2022'를 주관한 (사)섬아트제주에 따르면 이번 페어 기간 잠정 32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하며 지난해 기록을 갱신, 최고 성과를 냈다.

최근 크리스마스 시즌엔 (사)제주메세나협회와 제주도가 주최한 또 하나의 아트페어 '탐라국제아트페어 2022'가 첫선을 보였다.

새로운 공간도 생겼다. 지난 3월 서울 인사동엔 제주갤러리가, 제주시 원도심엔 새로운 현대미술전시공간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이, 12월 저지예술인마을엔 재일교포 건축가 고(故) 유동룡의 예술혼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동룡미술관(ITAMI JUN MUSEUM)'이 문을 열었다. 제주시 산지천 주변 옛 명승호텔인 '핑크 건물' '산지로31'은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잇따른 미술축제는 제주에서 서울(제주갤러리)까지 공간을 확대하며 저변을 넓혀갔다. 스물아홉 번째 '4·3미술제'를 연 탐라미술인협회가 '4·3미술 아카이브 기획전'을 서울에서, 격년제 개최로 2년 만에 돌아온 제주미협의 '제26회 제주미술제'가 제주와 서울에서 펼쳐졌다.

7회째를 맞은 '아트페스타 인 제주'는 올해도 산지천 일대를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변신시켰다. 특히 올해는 밤 9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야간축제'로 확장을 꾀하며 호응을 얻었다. 충분하지 못한 체험공간과 야외 입체 작품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10월에 산지천에서 열리는 야간 시민참여 미술축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후 5년 만에 '제주비엔날레'가 다시 찾아왔다. 올해 닻을 올리며 명맥은 유지하게 됐지만 도비 1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도내 최대 규모의 미술행사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한 미술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4~5월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진본의 '짧은 귀향'이 이뤄졌다. 178년 만에 탄생지인 제주(국립제주박물관)에서 특별전 '세한도, 다시 만난 추사와 제주'가 진행됐다. 이밖에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특별전, 채기선 작가 초대전 '한라산' 등 수많은 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등이 열려 도민과 만났다.

문학인들의 창작 열정도 꾸준했다.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을 배출하며 문이 열린 문학계는 시집, 수필집, 소설집 등 다양한 신간들을 쏟아냈다. 제1회 서귀포칠십리문학상도 제정됐다. 제주문학관이 개관 1주년 기념 첫 '제주문학 난장'이 선을 보였고, 첫 상설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제주문학 대중화와 도민에 다가가려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오은지기자

"대표 공연예술축제… 관객 확보 과제"

제주국제관악제 평가회

사반세기를 넘기며 제주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불려지는 제주국제관악제. 올해 27회를 맞은 관악제 여름·가을시즌에 참가한 연주자들은 제주국제관악제를 '대표적인 국내 공연예술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객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27일 제주문화예술재단 회의실에서 2022 제주국제관악제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 용역팀이 조직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방문객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와 시사점 등이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참여자 대부분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해 축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방문객 4.36점, 참여자 4.24점(각 5점 기준))됐으며, 방문객들의 제주국제관악제의 지속적인 개최에 대한 지지(4.63점)는 높게 나타났다.

또 설문에 응한 국·내외 연주자들은 제주국제관악제를 대표적인 국내 공연예술축제(4.24점)로 인식하고 있었다.

용역팀은 주요 성과로 ▷자긍심·지속 개최 지지 확인,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확대 ▷대표적 공연예술축제, 프로그램 내용·수준 기대 욕구 충족 등을 들었고, 주요 과제로 ▷축제 아이덴티티(시즌제) 정비 ▷축제성 강화를 위한 부대 프로그램 고도화 ▷관악인 참여 지속을 위한 참여환경 강화 ▷방문경험 확대를 위한 관람환경 강화 ▷홍보 콘텐츠 다양화·활성화(관악제 개막 이후 기간중에도 신규 유입이 가능한 잠재적 방문객 관심 이끌어내는 콘텐츠 보완 등) ▷현장 설치물 확대, 직관적인 집객 유도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삶의 위로 '해녀의 노래' 항일항쟁 90주년 콘서트

항일운동 시기에 불려진 '해녀의 노래'가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에 다시 울려퍼진다.

매깨라 스튜디오는 28일 오후 1시(오픈 리허설 공연)와 4시(본 공연) 제주해녀박물관 3층 공연장에서 제주해녀항일항쟁 미디어 콘서트 '해녀의 노래, 다시 태어나다'를 개최한다.

'해녀의 노래'는 우도의 독립운동가 강관순 지사가 옥중에서 가사를 지어 해녀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해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삶의 위로를 얻는다고 한다. 그 노래를 제주의 여성 작곡가 문효진 씨가 선물한다.

미디어 콘서트는 영상미디어 상영(70분)과 콘서트(30분)로 채워진다. 반도네오니스트 임시내, 정다운 첼리스트가 호흡을 맞춘다.

고재만의 제주어갤러리 <33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ᄋᆞ멩이 ᄀᆞᆯ멘, "바당이 어둑으민 배덜이 뱃질을 못 촞이난 등명대(도대불)에서 불을 비춰줌신게양."

ᄌᆞᆷ녜 ᄀᆞᆯ았저, "ᄋᆞ맹이야, 경ᄒᆞ난 바당에 제사를 지내기도 ᄒᆞ염주게. 바당서 무신 일이라도 나카부덴 바당 ᄋᆞ라 신덜안티 바당서 무신 일이 나지 안ᄒᆞ게 잘 도웨ᄃᆞ렌 빌엄주."

ᄋᆞ멩이 ᄀᆞᆯ멘, "누님, 경ᄒᆞ민 각 ᄆᆞ슬이 등명대(도대불)가 ᄃᆞᆫ 이서사 뒈컨게양."

하르바지 ᄀᆞᆯ멘, "기여, 느가 ᄀᆞᆫ는 말이 맞다. 경ᄒᆞ주만 ᄆᆞ실마다 ᄃᆞᆫ 이신건 아니여. 지금 등명대(도대불)가 이신 ᄆᆞ실이 서귀포시 보목리 성창에 싯저. 제주도 특벨ᄒᆞᆫ 현무암으로 탑을 다와시녜. 꼭대기에 불 피왕 ᄉᆞ방에 불빗이 잘 비촤지게 멩글안 싯저. 모진 비 ᄇᆞ름에 잘 준디게 ᄒᆞ연싯저. ᄒᆞᄉᆞᆯ 싯당 느영 거욱대나 귀경ᄒᆞ레 나사사 뒈켜게."

*** 제주어 풀이**

*뱃질을 못 촞이난 : 뱃길을 찾지 못하니.
*등명대(도대불)에서 : 등대에서.
*도웨ᄃᆞ렌 빌엄주 : 도와달라고 빌고 있지.
*ᄆᆞ슬이 등명대(도대불)가 : 마을이 등대가
*ᄃᆞᆫ 이서사 뒈컨게양 : 다 있어야 되겠네요.
*ᄆᆞ실마다 ᄃᆞᆫ 이신건 아니여 : 마을마다 다 있진 않지.
*싯다(시다, 이시다, 잇다) : <그림> 있다.
*등명대(도대불)가 이신 ᄆᆞ실 : 등대가 있는 마을.
*다와시녜 : 탑을 쌓았네. *불 피왕 : 불을 피워서
*ᄉᆞ방에 불빗이 잘 비촤지게 : 사방으로 불빛이 잘 비추어지도록.
*멩글안 싯저 : 만들어져 있지.
*ᄇᆞ름에 잘 준디게 ᄒᆞ연싯저 : 바람에 잘 견디도록 돼 있어.
*느영 거욱대나 : 너하고 거욱대나
* 귀경ᄒᆞ레 나사사 뒈켜게 : 구경하러 가야되겠네.

고재만 화백(전문가)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투어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예약폭발 마감임박!
날개 달린 품격여행

01 동경 3박4일
·12/31 연말특집 전세기 (나리타, 오다이바, 요코하마)
990,000원

02 오사카 3박4일
·12/22 출발
899,000원
·1/5, 1/12, 1/16, 2/16 출발
999,000원

03 베트남 다낭 3박5일
• 12/30 출발
1,090,000원 -5성급 에어텔
1,290,000 원-5성급 관광패키지

04 필리핀 마닐라
• 1/22, 2/24, 4/6출발
*관광 : 1,250,000원
*골프 : 1,590,000원(54홀)
*항공권 : 690,000원

05 타이페이/화년/야류 5일
• 1/4, 1/11/, 1/14 899,000원
• 2/7, 2/15, 2/21, 2/25 949,000원

06 세부 3박5일
• 2/24 출발
4성급 관광-1,090,000원
5성급 관광-1,290,000원

07 방콕/파타야 3박5일
• 매일 출발 •2명이상 출발
750,000원~ 패키지
1,190,000원~ 골프텔

08 나트랑/달랏 3박5일
• 2/22 출발
1,290,000원

I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팁/개인비용